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 ◎ **자녀주일:**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선교학교:**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육은 '선교 역사의 흐름'입니다. 오후 7시 30분 (금) 장소: Chapel 실
- ◎ **바자회:** 바누아투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장소 사용 관계로 6월 2일(월, Queen's Birthday)로 순연 되었습니다. 아울러 탁구대회도 같은 날로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 **모임:** 예배 후 5월 정기월례회가 각 선교회별로 있습니다.
- ◎ **성경공부:** 직분자 성경공부(11주)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료자: 경덕현, 김인희, 고성일, 김봉희, 김철재, 문일숙, 박덕철, 정혜숙, 박병민, 이기중, 이광희, 최광암, 김윤숙, 현석호, 임병숙.
- ◎ **출국:** 이태한 목사는 해외한인 장로회 총회(KPCA)와 선교사 대회 참석차 오는 10일(토) 출국했다가 29일(목) 귀국합니다. 건강한 일정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교우소식

- ◎ **입원:** 정옥자 권사 **수술:** 한누리집사 -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새벽기도회 본문

- | | |
|--------------------|--------------------------|
| 9일: 사무엘하 5:1~10 |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 16일: 사무엘하 9:1~13 |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삶 |
| 23일: 사무엘하 13:1~14 | 비뚤어진 육체의 욕망 |
| 30일: 사무엘하 15:13-23 | 진정한 충성과 배려는 어려울 때 더 빛납니다 |

해외 선교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국내 봉사 밀알장애우 봉사

온라인 선교
 설교 방송:
www.youtube.com/c/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5월 4일 16권 18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미안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에 멈춰 있는 수백명의 아픔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고스란히 다 알면서도 침묵에 잠긴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제발 살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 아빠, 아빠, 내 동생 어떡하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전부 사랑합니다”, “살아서 보자”, “아직 괜찮아”, “구명조끼 입고 있어” 이 모든 말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침몰해가는 배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삶의 의지를 담아낸 필사의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영원한 곳으로 먼저 갔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는 어른들의 말을 철석 같이 믿고 자신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말없이 있었던 착한 아이들, 그 말 대신에 빨리 움직여 갑판위로 올라가라는 단 한마디 만 했더라도 저 많은 주검들은 없을 텐데.

‘어른이라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떠나온 조국을 대변하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조국의 어른들, 아니 세계 어디에 있던 적어도 조국의 어른이라면 그대들 앞에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요 어른이라서 정말 미안해요. 그래요 어른들이 어른 답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 말이 그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이 된다면 그대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슬픔을 달랠 수만 있다면, 상한 마음이 아물고, 닫힌 마음이 열릴 수만 있다면 입술이 부르토고 또 다시 헤쳐도 365날이 다 가도록 조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른이라 미안하다는 말 뒤에 ‘그러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남은 그대들의 많은 친구들이 어른들을 불신하며 자라서는 더 이상 조국 대한민국에 미래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대들의 조국은 세계의 조롱과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대들의 조국이 침몰하고 있다는 서글픈 언어들도 떠돌아 다닙니다. 그대들의 값비싼 희생이 지나가는 소낙비처럼 된다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고오는 세대속에 다시는 어른이라 미안하다는 말이 조국을 대변하는 언어가 되지 않도록 그대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살피주세요. 어른이라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식 앞세운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성령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검으로 부모 가슴에 묻힌 그대들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세 례 식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찬 송
 헌 금 기 도
 특 송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마태복음 18:3-4
 찬양대
 다함께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96. 어린이 주일
 사도신경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경덕현 집사
 집례자
 잠언 23:22-26
 나무십자가 찬양대
어미를 기쁘게 하라/이태한목사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인도자
 아동부
 인도자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김은희 집사
 요나 3:5-10
회개와 돌이킴/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이민우 형제

◎ 5월 교회악기

월샅기도회: 5월 1일(목요일)
 자녀주일: 5월 4일(주일)
 세례식: 5월 4일(주일)
 부모주일: 5월 11일(주일)
 공동체주간 수요일예배: 5월 26일(수요일)

◎ 5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남영수/김현주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순자 권사
 다음 주일: 박덕철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박찬준 형제
 5월 14일 수요: 김수원 집사
 5월 14일 애찬: 이규임 권사
 5월 18일 주일: 김철재 집사
 5월 18일 청년부: 이예찬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새로와 지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2.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3. 타지방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매순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4.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억울함, 원망, 분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해 적극적인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1/4분기를 점검하면서 여러 선교사들의 연락처를 심습니다. 각 공동체별로 선교사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체	선교사	사역지 및 사역	기도제목	이메일과 연락처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동탑성 탄빈군 지역 기초보건, 주택보급, 구제, 교육사역	한진숙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지금한국에서 치료 중), 성령충만을 위해	이지양 imjyang@gmail.com 한진숙 imjinsuk@gmail.com 82-(0)70-4084-1677
루마니아	김유정	쿠르테아 데 아르제쉬 지역 집시들의 자활 사역	건강을 위해(갑상선암) 정교회의 방해가 중단 되고 서로 협력하도록	4-0754-911375 Jkyj77@gmail.com 현재 한국에서 항암 치료 중 (5월에 루마니아로 감) 010-4593-9064
통가	박종균 유미자	유치원개설, 장애우를 위한 복지시설 건축, 빗물탱크 만들기, 영농기술 보급	통가 영혼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손가락 봉합 수술이 속히 치료 되도록	Pjgt2537@hanmail.net 676-7746-777 070-400-77369 한국에서 치료 중
캄보디아	홍순목	트라이 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제빵사역	결정된 사역지에 필요한 준비가 잘 되도록, 사역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010-4229-5322 boazkorea7@gmail.com
태국	심재우 김신애	방콕	살롬 기숙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사역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가족들 모두 영육으로 강건하도록	jaiwoo.shim@gmail.com Bangkok Centre Manager at BBM / Coordinator at BBG in Thailand 66-(0)83-013-7291, 070-8690-9774
바누아투	엘더 톰	삼마	교회가 지역사회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일자리를 찾아 떠난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도록, 가족들 모두 영육으로 강건하도록	678-541-7866 saamapresbyterianchurch@gmail.com lester@nbv.vu